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리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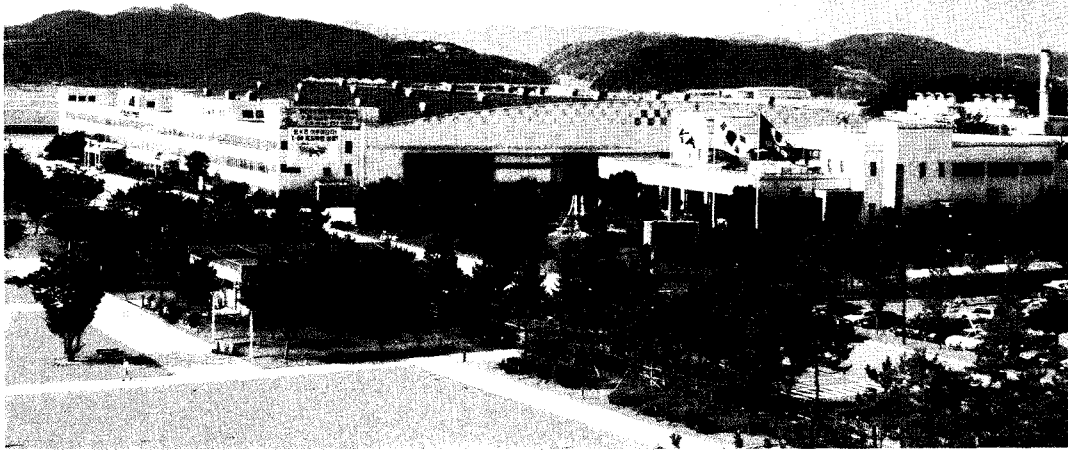
업계탐방

대한민국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리딩 기업

글

· 이매숙 대리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우주기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어,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10년 후 한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으로 꼽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를 찾아가 보았다.



국가발전의 기둥인 항공우주산업

전형적인 농어촌이었던 경남 사천시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가 지난 1999년 10월 설립되어 사천에 둥지를 튼 뒤부터이다.

KAI는 기체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막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회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KAI는 “2010년까지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세계 10대 항공업체로 성장한다”는 NEW '10'10비전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선진 항공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발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KAI는 2015년까지 국가적 염원인 한국형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세계 수출시장 개척 및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첨단 항공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TA-50(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KT-1(기본훈련기), UAV(무인항공기), KF-16(다목적전투기), KUH(헬기사업) 등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특히 최신 항공기술로 설계되고 최첨단 전자장비가 장착된 21세기 유일의 초음속 항공기인 TA-50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T-50은 우리 공군에 납품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세계 여러 나라와 수출협상 중이다. 지난해에는 터키 정부와 우리나라 항공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KT-1 55대(5억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AI 관계자는 "T-50기는 제작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1kg당 부가가치가 435만 원이다"라고 설명, 중소형차인 아반떼의 1kg당 가격이 1만 원인 사실과 비교해볼 때 항공산업이 얼마나 첨단산업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방재 및 보안을 위한 철통 감시

KAI는 건물 연면적 144,000㎡, 30여 동으로 구성된 규모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주력 업체답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신 방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안이 각별히 요구되는 만큼 CCTV 감시, 화재 감시, 출입통제시스템, 외부침입방지시스템, 내부방범시스템, 자유유출방지시스템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화재사고 방지는 물론 보안을 위한 감시체계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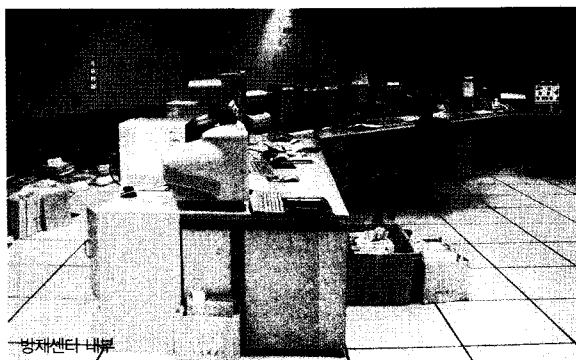
항공기를 생산하는 최종조립공장에는 130여 개의 최신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 오동작 감소 및 화재감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항공기의 도장 및 시험 격납할 수 있는 모든 건물에는 포소화설비를 설치, 4km에 달하는 공동구에는 물분무소화설비, 주요 위험공정에는 CO₂, 하론, 청정소화약제 등의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다. 2008년 초에는 공장 내 모든 전기실 및 변전실 내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CO₂자동 소화설비 설치 및 수신기를 최신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화관리

KAI는 방재순찰 및 안전점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공장전역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2개의 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방재센터에는 12명의 감시요원이 24시간 상주근무하고 있고, 야간 및 휴일에는 방재센터 인원과 별도로 당직실과 안전순찰요원 27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여 만일의 사태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비롯하여 인근 소방서 및 근처 공군 소방대와 매년 2회 합동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팀별 소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함으로써 365일 무재해 무사고 사업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사내 화재신고전화 1119번으로 신고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고 사내 소방차를 운영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사내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안전성평가를 통해 화기작업 전 일정을 체크하고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건물 신·증축 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및 국가화재안전기준을 상회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첨단 항공우주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세계 일류 업체의 꿈을 실현하여 세계 곳곳에서 KAI의 항공기를 사용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



방재센터 내부